

강임준 군산시장, 내년 국가예산 확보 노력

국회 방문 국가예산 주요 사업에 국회 차원 협조 요청해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등 주요사업 예산반영요구

민선7기 군산시의 선장인 강임준 군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발 빠르게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인 만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내년도 주요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를 방문한 강 시장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 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국가예산 주요 현안사업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지역 국회의원인 김관영 국회의원을 만나 군산시 지역현황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군산출신 국회의원인 김중로, 채이배 의원과 예결위 소속 안호영, 황주홍 의원을 차례로 만나 군산의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군산시의 성장·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GM구조조정 등에 따른 관련 부품업체와 퇴직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자동차 부품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 위기지역 자비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핵심인력 고용유지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민선7기 군산시의 선장인 강임준 군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발 빠르게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고 지역구 의원인 김관영 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년도 예산에 보다 많은 지역현안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장에너지, 지역인재양성 장학사업에 앞장 '귀감'

군산지역 91명 학생들에게 총 5300만원의 장학금 전달

군장에너지(대표 박준영)는 지역 내 기업중에 으뜸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군장에너지 본관 3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박준영 대표이사, 표영희 전무이사를 비롯해 장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박준영 대표이사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 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군장에너지 장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장에너지는 매년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금을 기반으로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장학금 전달 행사에서 중·고등학생 88명 각 50만원, 대학생 5명 각 200만원으로 군산지역의 91명의 학생들에게 총 5,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고 올해 연말에도 2차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진경여자고등학교 익산시에 감사패 전달

익산 진경여자고등학교(교장 고범영)가 지난 11일 익산시청을 찾아 사회적경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혁신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진경여고는 2017년 교육부가 공모한 매력적인 직업계 고등학교 육성사업에 응모하고자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 약 2개월에 걸쳐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컨설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복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진경여고만의 독자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2017년 7월, 매직사업에 최종 선정, 3년간 약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본 사업의 일환인 학내 매점 설치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힘을 모아 학교협동조합을 설립중이며



빠르면 오는 9월 말경에는 개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익산시 최초의 학교협동조합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고범영 교장은 "학생들에게 학술적인 정보를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참 교육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현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상생과 협동에 대한 진경여고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27일 개장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대상은 유치원생·초등학생 4학년 이하

익산시가 어린이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 4개소 야외 물놀이장을 오는 27일 개장해 8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외 물놀이장 개장식은 영등시민공원에서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이며 이용대상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4학년 이하이다.

시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4개소 체육공원인 영등시민공원,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에서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영등시민공원에서만 운영하던 슬라이딩 미끄럼틀을 배산체육공원에 추가 설치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유아풀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 물놀이장은 2015년부터 올해로 4년째 지속되는 사업으로 익산시체육회에서 주관하여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

영등시민, 배산체육공원의 설치규모

는 초등학생풀 200㎡, 수심 70cm, 유아풀 25㎡, 수심 50cm이고 중앙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의 설치규모는 초등학생 풀 100㎡, 수심 70cm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풀장 차관막, 물골덴트(휴식공간, 탈의실 등)를 설치하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매일 물을 교체하며 구급약품과 상비약을 비치하는 등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객 준수사항 안내표지판을 4개소 풀장에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시설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미끄럼틀이 늘고 유치원생들을 위한 유아풀이 따로 생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호뭇하다"며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쌓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민들, 여름철 악취문제 해결위한 서명운동 돌입

익산시민들이 여름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익산시 부송동·영등동 주민들은 최근 "여름철 악취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익산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고동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선것 서명운동에는 이미 300여명이 참여했

고 악취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서명운동 등과 함께 악취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도 계획 중이다. 주민들은 "익산시청에 악취해결을 위한 민원을 직간접적으로 해마다 제기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생존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도의원들과 간담회

익산시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12일 익산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대오, 김정수, 김기영, 최영규 도의원 등이 참석, 시 주요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교환했다.

시는 먼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시장운영방향인 익산시 6대 비전과 5대 역점과제를 설명하며, 익산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브리핑했다.

이어 주요 현안 건의 내용으로 전라

북도 말 산업 특구에 포함된 익산시가 계획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청한 단위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과 내년 제4회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익산 실내체육관 환경개선사업, 중국 등 해외진출 주얼리 기업의 익산 유치를 위한 ▲주얼리단지 임대공장 건립사업의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역점과제인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라시아 철도 거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도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수협, 수도권 2호점 서울 상도동지점 개점

군산시수협(조합장 김광철)은 서울특별시 상도동에 수도권점포 2호점인 상도동 지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이날 개점식 행사에는 김광철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원 및 임직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광철 조합장은 "작년에 수도권에 1호점인 중계동지점을 개설하여 큰 성공

을 거둬 여수신 등 금융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력이 집중된 서울 상도동에 진출했다"며 "상도동에서 인접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수협은 군산에 8개, 서울에 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엔 서울 상도동지점(수도권2호점)을 개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